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18, Vol. 37, No. 2, 221-255
http://dx.doi.org/10.22257/kjp.2018.06.37.2.221

청소년 자녀와 사별한 부모의 부부관계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세월호 유가족의 경험을 중심으로

신 지 영[1)] 이 동 훈[1)†] 서 은 경[2)] 전 지 열[1)]

[1)]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2)]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본 연구는 자녀와 사별한 부모의 부부관계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세월호 유가족을 대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 15명의 면담자료를 활용하였다. 면담자료는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부부관계 경험은 '부부의 서로 다른 애도반응 및 애도방식의 차이', '예전과 달라진 부부의 모습들', '자녀 때문에 부부가 유지되고 살아가게 됨: 부부에게 던져진 생존자녀와 사별자녀의 의미'의 세 축으로 분류 되었고 구성요소 7개, 하위구성요소 25개가 도출되었다. 구성요소는 '슬픔에 갇힌 채 일상을 버텨가는 아내', '가장이기 때문에 슬픔을 억눌러야 하는 남편', '예전의 행복했던 모습과는 달라진 부부의 일상', '힘들어하는 배우자를 바라보며 소진되어감', '사별의 슬픔을 배우자와 함께 감당해 가기', '자녀 잃은 고통을 버텨가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존재의 가치를 새로 알게 됨', '자녀 때문에 부부가 유지되고 살아가게 됨: 생존/사별자녀의 의미'이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세월호 유가족, 청소년 자녀, 사별, 부부관계

† 교신저자: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및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소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02-760-0558, E-mail: dhlawrence05@gmail.com

www.kci.go.kr

자녀 사별 경험은 부모가 한 개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극심한 외상성 사건으로서 부모의 삶과 관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자녀 사별 이후 개인적인 삶에서의 변화뿐 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Albuquerque, Pereira, & Narciso, 2016). 갑작스러운 자녀의 죽음은 가족 체계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와의 부부관계, 부모와 생존 자녀(surviving child) 간의 관계 등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hman, Lang, & Wortman, & Sorenson, 1989; Rasras, Mitwalli, & Sehwail, 2006). 자녀 사별 경험 이후 부부는 배우자와의 유대감이 더욱 강해지고 부부 간 친밀감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관계 응집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배우자와 갈등을 빚거나 부부 간 소통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함에 따라 두 가지 상반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Klass, 1987; Oliver, 1999; Schildhaus, 1997).

자녀를 잃은 외상 경험은 그 자체로도 결혼생활의 안녕(well-being)과 질, 결혼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Broman Riba, & Trahan, 1996), 사별 이후 부부가 일상적인 삶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Najman, Vance, Boyle, Embleton, Foster, & Thearle, 1993). 자녀를 사별한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더 높은 이혼율을 보이며, 이혼에 대한 위험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yngstad, 2013; Murphy, Johnson, & Lohan, 2003). 특히 갑작스러운 자녀 사별을 경험한 부모는 예기된 사별을 경험한 부모에 비해 부부관계의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Rellias(2011)에 따르면 예기치 않은 자녀의 죽음을 경험한 부모는 갑작스러운 상실로 인한 트라우마를 다룰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Johnson (2002)은 자녀를 갑작스레 사별한 부모는 사별을 경험한 이후로 잃은 자녀와의 애착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서의 애착도 갑작스럽게 손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뿐 만 아니라 자녀 사별 이후 부부는 각자 자녀를 잃은 슬픔에 압도된 나머지 배우자의 슬픔까지 돌볼 정서적 가용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Wijngaards-de Meij et al., 2007) 배우자의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에게 느끼는 친밀감은 사별 경험 이후 감소하게 될 수 있으며, 사별 경험 이후 배우자에게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수록 비애의 강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극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ang, Gottlieb, & Amsel, 1996).

자녀를 잃은 부모는 애도반응(grief reaction)과 애도방식(grieving style)에서 배우자와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Cacciatore, DeFrain, Jones, & Jones, 2008; Schwab, 1992) 이는 한 개인으로서 경험하는 경험세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자녀 사별 경험으로 인한 애도반응에서 일관성 있는 성차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Martin & Doka, 2000; Moriarty, Carroll, & Cotroneo, 1996; Stroebe, 2001).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애도반응이 아버지의 애도반응에 비해 더욱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며(Avelin, Radestad, Saflund, Wredling, & Erlandsson, 2013; Rando, 1983; Rubin & Malkinson, 2001), 정서적 고통도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riarty et al., 1996). 또한 어머니의 경우 사별 이후 우울장애 등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보고하는 반면, 아버지의 경우 알코올 사용

www.kci.go.kr

장애와 같은 행동적인 문제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roebe & Stroebe, 1987). 이러한 심리적 반응은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iches & Dawson, 1996).

한편 부부는 애도반응 뿐만 아니라 애도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 때 부부는 배우자와 함께 애도하기도 하고 배우자와 분리되어 자신의 고유한 애도과정을 경험하기도 한다(Toller & Braithwaite, 2009). 특히 자녀 사별 경험 이후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과 상실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려고 하는 반면,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지 않고 철수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velin et al., 2013; Bergstraesser, Inglin, Hornung, & Landolt, 2015). 또한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에 직면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드러나는 반면 아버지는 회피하는 패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troebe, 2001). Avelin 등(2013)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철회양상은 부부관계에서 성역할 기대(gender role expectation)가 존재하며, 아버지는 흔히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배우자를 묵묵히 지지하는 모습을 기대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자녀를 잃은 슬픔에 대한 대처 방식도 부부 간에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어머니는 생존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지지체계를 찾는 반면,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일에 몰두하는 대처 양식을 나타내거나(Schilhaus, 1997), 상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복구하고 대처해나갈 것인가에 관한 과업지향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lam, Barrera, D'Agostino, Nicholas, & Schneiderman, 2012; Polatinsky, & Esprey, 2000).

이처럼 부부 관계에서 각 개인이 나타낼 수 있는 애도 반응과 방식에서 차이가 드러날 때, 부부가 서로의 애도방식을 존중하지 못하거나 배우자와 자신의 애도반응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갈등을 빚게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배우자와 자신의 애도 반응이 동일한 수준이라고 느낄 경우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Buyukcan-Tetik, Finkenauer, Schut, Stroebe, & Stroebe, 2017), 배우자가 자신과 상이한 애도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우 부부관계에서 불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Riches & Dawson, 2000). 특히 자신과 다른 애도반응이나 슬픔의 강도를 보이는 배우자에게 적절한 애도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사별한 자녀와 충분한 애착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오해함으로써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을 갖게 될 수 있다(Bonanno, 2004; Fraley & Bonanno, 2004; Rogers, 2005). 때때로 부부관계에서는 강렬한 애도반응을 나타내는 배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애도반응을 경험할 경우 자신의 애도반응이 배우자만큼 강렬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 배우자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판단을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Baumeister, Still-well, & Heatherton, 1994). 또한 부부관계에서 배우자가 고유한 애도방식과 반응을 나타낼 경우에 배우자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부족할 경우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Avelin, Rådestad, Säflund, Wredling, & Erlandsson, 2013). 이러한 점에서 애도 반응과 방식 차이 그 자체가 갈등을 야기하기 보다는 자신과 다른 배우자의 주관적인 애도 반응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

www.kci.go.kr

하는지가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부부 간의 애도반응 및 방식에 대한 경험의 차이로 인해 부부 간의 소통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Schwab, 1992). 자녀를 사별한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배우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소통을 차단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될 수 있다. Hooghe, Rosenblatt과 Rober(2017)에 따르면, 자녀 사별 이후 부부 간 소통 중단의 이유는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느끼는 부족함과 무의미함 때문에 대화하지 않거나 배우자와 동일한 상실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도과정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배우자와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과정의 표현으로 대화를 하지 않기도 했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방식으로 대화를 하지 않기도 하였다. 또한 오히려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화를 중단한다는 견해도 존재하였다. 오히려 배우자와 상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자녀의 사별에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배우자를 보호하고자 소통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Rando, 1984).

그러나 부부 간 소통은 자녀 사별에 관하여 건강한 애도과업을 수행하고 자신의 애도반응에 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를 보호하고자 대화와 소통을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부부가 사별경험으로 인한 애도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낳게 된다(Stroebe, Finkenauer, Wijngaards-de Meij, Schut, van den Bout, & Stroebe, 2013). 자신의 애도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사별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상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Rosenblatt & Elde, 1990), 특별히 자녀 사별 이후 부부 간 소통과 대화의 질이 좋을수록 부부관계는 사별 경험 이전에 비해 더욱 응집력이 높아지고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결혼생활만족도를 보고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Vandenberg, 2001), 배우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자녀를 잃은 부부의 심리적 회복을 저해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자녀를 잃은 부부는 배우자에게 자신의 정서적 고통에 대해 개방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지만, 언제나 부부관계에서는 배우자에게 자녀 사별 경험에 관한 자신의 마음을 개방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내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긴장이 존재한다(Hooghe et al., 2017). 이는 자신의 애도경험을 배우자와 공유하지 못해 외로움을 경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침묵을 지키며 홀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이다(Hooghe, Neimeyer, & Rober, 2011). Toller와 Braithwaite(2009)에 따르면 배우자 개인의 애도를 위한 공간을 허락하고 배우자가 홀로 애도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폐쇄성을 수용하는 선택적 폐쇄성(selective closedness)이 부부관계에 치유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는 자녀를 잃은 부부 간의 대화와 소통의 문제에서 애도경험을 배우자와 함께 대화하며 공유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내적 갈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Kissane et al., 2006, Toller & Braithwatie, 2009).

한편 자녀를 잃은 부모들은 부부관계에서 자녀 사별로 인한 트라우마에 회복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www.kci.go.kr

긍정적인 부부관계 경험을 하는 것은 자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부의 사별 이후 적응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Essakow & Miller, 2013). 선행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서의 회복적인 경험은 주로 자녀의 죽음을 견뎌나가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지지(support) 자원이 될 때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부부는 서로 더욱 가까워지고 부부관계의 응집력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Essakow & Miller, 2013; Titus & Souza, 2011). Essakow와 Miller(2013)에 따르면, 자녀를 사별한 이후 부부관계에서 유대감을 더 많이 경험하고, 배우자와 상호적 이해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회복적인 경험은 배우자와 자신의 애도반응과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관계에서 자녀의 죽음 이후 함께 자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사별 경험과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에게 의지하며 깊은 유대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Toller & Braithwaite, 2009).

또한 자녀를 잃은 부부는 자녀 사별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부부관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부부가 함께 공동대처양식(dyadic coping)을 활용하기도 한다. Bergstraesser 등(2015)은 공동대처란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배우자와 함께 관리하고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상태를 사별 경험 이전으로 회복시키려는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부부가 함께 사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회복되고자 함께 자조집단을 찾거나 영성에 의지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행동을 함으로써 사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영성이나 종교를 찾는 행동은 자녀를 잃은 부부들이 사별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동대처방식으로 보고되고 있다(Ungureanu & Sandberg, 2010). 부부 간에 애도과정을 특히 부부가 자신의 종교적 대처 방식에 관하여 배우자와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부부의 건강한 애도작업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Gilbert, 1997). 또한 부부는 부부관계를 재건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죽음을 뒤로 하고 남겨진 생존 자녀의 양육을 지속해나가는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게 된다(Rossetto, 2015). 자녀의 죽음으로 애도에 빠진 부부에게 생존 자녀의 존재는 삶을 지속해나가는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Rogers, 2005). 이렇듯 부부가 함께 자녀의 죽음이라는 외상 사건에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자녀 사별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부의 공동 대처 방략은 그들의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자녀 사별 이후 부부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는지 혹은 악화되었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이는 부부가 자녀 사별로 인한 영향을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부부 체계 및 가족 체계의 차원에서 경험하기 때문이다. 체계 이론적(systems theory) 관점에 따르면,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의 애도반응은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족 전체의 변화를 야기한다(Rosenblatt, 2000a).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자녀 사별로 인한 부모의 애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반응이 아닌 가족과 부부관계의

www.kci.go.kr

질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건이 된다. 한 가족구성원의 트라우마 반응이 전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므로(Figley, 1999) 결국 부모의 자녀사별 경험은 그 자체로도 가족 기능의 질에 영향을 주며(Lohan & Murphy, 2007), 가족의 위기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Abbott, 2009), 가족관계의 해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Thompson et al., 2011). 사별 경험 이후 배우자 뿐 만 아니라 생존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여러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가족 차원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Lohan & Murphy, 2002). 특히 자녀를 잃은 부모는 잃은 자녀를 향한 슬픔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상대적으로 남겨진 자녀에게 정신적, 물리적 거리감을 경험하기도 하며, 이는 남겨진 자녀에 대한 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ain, Fast, & Erickson, 1964; Talwar, Harris, & Schleifer, 2011). 반면, 자녀 사별 이후 부모가 부부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배우자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사별로 인한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Essakow, & Miller, 2013). 이처럼 부부관계의 좋은 질은 사별 이후 부부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예측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Song, Floyd, Seltzer, Greenberg, & Hong, 2010), 사별 경험 이후 의미 찾기 과정(meaning making)은 높은 결혼생활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Murphy, Johnson, & Lohan, 2003) 긍정적이고 회복적인 부부관계는 개인의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 사별을 경험한 부부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치료적 개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자녀 사별을 경험한 부모들은 부부관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함에 따라 부부치료와 상담에 대한 필요를 절감하게 되며, 부부관계 차원에서 자녀 사별경험에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자주 보고한다(Joronen, Kaunonen, & Aho, 2016). 또한 선행연구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가 부부관계의 회복요인을 부부 상담 등의 전문적인 도움 추구로 귀인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는 점(Alam et al., 2012)을 고려할 때 자녀 사별 이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개입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 있다. 이처럼 자녀 사별 이후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한 개입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별경험 이후 어떠한 부부경험을 하는지, 부부 간 상호작용의 질은 어떠한지에 관한 탐색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사별 이후 부부관계 경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가족구성원을 사별한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이 다소 발표되었지만 사별 이후 부부관계 경험을 탐색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갑작스러운 자녀 사별을 경험한 부모의 부부관계 경험에 관한 심층적인 탐색은 그동안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재난이 발생한 지 여러 해가 지난 시점에서도 자녀의 죽음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지 못하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모들이 진상규명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월호 유가족의 자녀 사별 경험은 사별의 여러 원인(만성질환, 교통사고, 자살 등)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녀 사별 이후 부부관계 경험이 어떠한지를

www.kci.go.kr

파악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자녀 사별을 경험한 부모들에 대한 이해와 부부 및 가족상담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세월호 재난으로 청소년 자녀와 사별한 부모의 부부관계 경험은 어떠한가?'였다.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 15명의 면담자료를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 이후 2년이 흐른 시점에서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여 모집되었으며, 416 유가족 협의회에 소속되어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참여자들에게 직접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를 받은 후 심층면담이 수행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심층면담에 참여한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다른 세월호 유가족들을 추천받아 연구참여 동의를 받은 후 심층면담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세월호 재난으로 청소년 자녀와 사별한 부모의 부부관계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기혼 상태인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자료를 2차 자료분석(secondary analysis)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료수집단계에서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심층면담에 참여한 전체 인원은 17명이지만, 현재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던 한부모 가정의 연구참여자 2명의 구술 내용은 본 연구의 주제에 부합하지 않아서 자료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서 활용된 최종 연구참여자의 수는 15명으로, 남성 7명, 여성 8명이며, 이 중 10명은 부부관계(총 5쌍)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심층면담을 수행한 시점에서 기혼상태였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1~3명의 생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였다. 생존자녀가 있는 가정 수는 총 10가정이었으며 이 중 생존자녀가 1명인 가정은 12명, 생존 자녀가 2명인 가정은 1명, 생존 자녀가 3명인 가정은 2명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생존자녀의 연령은 심층면담 시점을 기준으로 16세~25세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개별 심층면담과 부부 단위 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은 세월호 유가족의 개인적 삶,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기록 가운데 본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15명의 연구참여자들의 축어록을 바탕으로 부부관계에 대한 구술만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부부관계였던 10명(총 5쌍) 중 8명(4쌍)의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와 함께 부부단위로 심층면담에 참여하였으며, 나머지 2명(1쌍)은 서로 면담시간 조율이 곤란하여 각기 따로 개별 면담에 참여하였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심층면담에 배우자를 동반하기 어려웠던 연구참여자 5명은 개별 면담에 참여하였다. 심층면담은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연구참여자의 자택, 세월호 분향소, 안산 인근 상담센터 등의 장소에서 2~3시간에 걸쳐 수행되었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담은 트라우마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년간 질적연구 경험이 있

www.kci.go.kr

는 상담전공 교수 1인이 직접 수행하였고, 모든 면담에는 상담전공 박사과정 1인과 석사과정 2인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상담전공 교수 1인은 연구참여자들이 자유롭고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세월호 재난 이후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관한 개방형 질문으로 면담을 시작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이 부부관계 경험과 배우자 및 가족과 관련된 진술을 할 경우 부가적인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정 주제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연구참여자의 진술이 필요할 경우 면담이 종료되기 전에 박사과정 1인과 석사과정 2인이 질문을 덧붙였다. 심층면담 녹취 내용은 석사과정 2인이 심층면담 직후 1주일 이내로 전사하였으며, 면담을 진행한 상담 교수 1인은 면담 시 현장 노트(field note)를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심층 면담한 자료를 Giorgi (1985/2004)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는 연구방법으로서 연구참여자의 고유한 경험세계를 드러내는 귀납적인 방법이므로(Omery, 1983), 예기치 못한 자녀의 죽음을 경험한 부모들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접근을 통하여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고, 있는 그대로 기술함으로써 그들의 경험세계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자들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질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Giorgi(2004)가 제시한 것처럼 각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 경험을 생생하게 기술한 이후 전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내용을 토대로 일반적 구조진술로 통합하는 과정을 따랐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경험 구조를 파악하고자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 4단계 절차를 활용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상담전공교수 1인, 박사과정 1인, 석사과정 2인으로 이루어진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의 심층면담 녹취자료를 반복적으로 청취하며 참여자의 구술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 이후 기술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함께 읽으면서 전반적인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기존에 지니고 있던 선입견이나 가정을 배제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의식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부부관계 경험과 관련이 있는 의미 단위를 추출하기 위해 의미있는 진술을 탐색하고 추출한 후 각각의 의미진술에 번호를 붙여 94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셋째, 추출한 의미단위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의미하는 중심의미를 도출하였다. 이 때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심리학적 용어로 기술하기 위하여 함께 기존의 상담 및 심리학 이론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하였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는 단계로, 연구참여자들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각 연구참여자들의 상황을 반영한 상황적 구조를 기술한 이후, 각 사례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구성요소를 추출한 다음 일반적 구조로 통합하고 기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의 일반적 구조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연구참여자들의 구술자료와 기술내용을 반복적으로 대조하며 점검하는 과정을 수행하

www.kci.go.kr

였다. 그 결과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부부관계 경험은 '부부의 서로 다른 애도반응 및 애도방식의 차이', '예전과 달라진 부부의 모습들', '자녀 때문에 부부가 유지되고 살아가게 됨: 부부에게 던져진 생존자녀와 사별 자녀의 의미'의 세 축으로 분류되었고 구성요소 7개, 하위구성요소 25개의 구조로 나타났다.

연구의 윤리적 문제 및 엄격성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연구자 소속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연구윤리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신상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표기될 것이며, 인터뷰 녹취, 연구참여에 대한 자발성 및 참여철회의 자율성 등을 설명하고 면담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심층면담 도중 심리적, 신체적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즉시 면담을 중단하고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Guba와 Lincoln(1985)의 4가지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확보하기 위해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전공 교수 1인, 박사과정 1인, 석사과정 2인이 수차례 논의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생생하게 기술되었는지를 점검하였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를 확보하기 위해 심층면담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생길 경우 연구참여자들에게 연락하여 분석내용에 관한 재확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론에 관한 워크샵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질적연구전문가로부터 분석 내용에 관한 자문과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는 분석내용이 적절한 하위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로 범주화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고 의견을 주었으며 연구자들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분석내용을 수정하였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을 확보하기 위해 세월호 재난에 관한 문헌과 보도자료, 상실과 사별, 트라우마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심리학 이론 및 가족체계이론 등을 활용하여 삼각검증 과정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헌들에서 다루어진 유가족들의 특성과 본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월호 재난으로 청소년 자녀를 사별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만이 나타내는 독특하고 특수한 경험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자 하였다.

결 과

Giorgi(2002)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인 경험을 구성요소 별로 생생히 기술하는 '상황적 구조기술'과 구성요소 간의 관계에 관한 모든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포괄하여 기술하는 '일반적 구조기술'로 분류하여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재난으로 청소년 자녀를 사별한 부모들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상황적 구조와 일반적 구조를 기술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사별한 부모들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상황적 구조기술

자료분석결과, 자녀와 사별한 부모의 부부

www.kci.go.kr

관계 경험은 구성요소 7개, 하위구성요소 25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구성요소와 하위구성요소는 '부부의 서로 다른 애도반응 및 애도방식의 차이'(표 1), '예전과 달라진 부부의 모습들'(표 2), '자녀 때문에 부부가 유지되고 살아가게 됨: 부부에게 던져진 생존자녀와 사별 자녀의 의미'(표 3)의 세 축으로 분류되었다.

슬픔에 갇힌 채 일상을 버텨가는 아내

세월호 재난 이후 유가족 어머니들의 일상은 슬픔에 갇힌 감옥과 같았다. 유가족 어머니들은 자녀를 잃은 고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몸져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연구참여자 15). 모든 의욕은 사라졌고 집안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집안 살림이나 식사를 챙

표 1. 부부의 서로 다른 애도반응 및 애도방식의 차이

개념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몸져 누움	슬픔에 압도된 아내	슬픔에 갇힌 채 일상을 버텨가는 아내
사건 이후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슬픔이 가득해서 집안 살림이나 가족의 식사를 챙기는 것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고 점점 소홀하게 됨		
아내가 밤마다 잃은 자녀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함		
아내는 자녀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며 잃은 자녀의 방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어 자녀를 기억하려 함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공방에서 다른 유가족 어머니들과 함께 잃은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울고 웃는 게 위로가 됨	세월호로 자녀를 잃은 다른 부모들과 슬픔을 위로하며 견딤	
공방 안에서 다른 유가족 어머니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노란 리본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함		
자녀를 잃은 슬픔과 분노를 잊기 위해 억지로 직장 일에 매달림	슬픔과 분노를 삭히는 남편	가장이기 때문에 슬픔을 억눌러야 하는 남편
남편은 자녀 잃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일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사라짐		
잃은 자녀와 함께 했던 추억을 계속 이야기 하고, 잃은 자녀의 살아생전 모습을 계속 생각하면서 술을 마시는 남편을 보며 안타까움	술 없이는 삶을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은 남편	
자녀의 죽음에 대한 아픔을 술로 해결하려는 남편이 걱정스러움		
술 없이는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남편이 염려됨		
나 개인의 슬픔보다 가장으로서 앞으로 남겨진 가족들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고민함	가장의 책임감에서 오는 막막함	
가장으로써 아내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혼란스러움.		

www.kci.go.kr

표 2. 예전과 달라진 부부의 모습들

개념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죽은 자녀에 대해 이야기해도 나아질 것이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아내와의 대화가 예전보다 확연히 줄어들다 보니, 삶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음	부부 대화에서 금기시된 사별 자녀의 존재	예전의 행복했던 모습과는 달라진 부부의 일상
사고 이후 자녀에 대한 얘기를 서로 꺼내지 않아 죽은 자녀에 대한 남편의 현재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없음		
죽은 자녀에 대해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아내가 더욱 마음 아프고 힘들어 질까봐 이야기를 하지 않음		
자녀의 죽음 이후로 배우자와 각방을 쓰며 떨어져 지내고, 거실에 함께 있어도 TV 틀어놓고 대화를 잘 하지 않음	부부 대화의 급격한 감소	
자녀의 죽음 이후 집에서는 웃음과 대화가 줄어들어 더 이상 배우자와 대화 하려 하지 않음		
남편이 회사에서 이런 저런 소문에 시달려 너무 힘들다 보니 집에서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음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자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어들어 부부사이가 소원해지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듦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아내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하며 짜증냄	서로 예민해져 짜증과 다툼이 대화의 주를 이룸	
남편이 예전에 비해 예민해지고 작은 것에 참을성이 없어져서 다투는 횟수가 많아짐		
세월호 재난 이후 평소 대화를 할 때, 작은 일도 남편 탓으로 돌리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아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음		
항상 날서 있는 아내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싸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내가 상처받는 말을 건네더라도 무조건 참으며 대화를 피함		
집에 돌아오면 남편과 잃은 자녀의 이야기를 하며 울다가 싸우는 패턴을 반복함	배우자 갈등의 원인은 사별 자녀에 대한 슬픔	
남편이 죽은 자녀의 생각을 하며 우는 모습을 보고 견디기 힘들어 서로 다툼		
자녀의 죽음으로 마음을 잡지 못하는 남편이 답답하면서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못하고 막막한 심정		
자녀를 잃은 슬픔을 풀 곳이 마땅치 않아 남편에게 화를 냄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이어주는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갈라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겨진 자녀에게 상처주고 싶지 않아서 참음	자녀를 잃은 상실과 아픔이 커서 조금이라도 배우자에게 서운함이 들면 쉽게 이혼 이야기를 꺼냄	
세월호 사건 후 남편과 싸우면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등 극단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됨		
세월호 이전에는 절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조금이라도 배우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면 자녀의 죽음 앞에 이혼이 큰일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쉽게 이혼을 생각하게 됨		
자녀의 죽음에 관하여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분노를 밖에서는 표출하지 못하고 괜히 남편에게 퍼부음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답답함이 부부관계를 악화시킴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화가 나지만 국가는 너무 거대한 벽이기 때문에 국가를 향한 분노를 배우자에게 해소하게 됨		
세월호 재난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때문에 극심한 분노를 경험하며 아내는 계속 신체적인 고통까지 경험 함		

www.kci.go.kr

표 2. 예전과 달라진 부부의 모습들 (계속)

개념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부부관계 안에서 남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아내가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진상규명활동에 참여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함	진상규명활동 참여가 유일한 부부의 에너지원이자 희망	예전의 행복했던 모습과는 달라진 부부의 일상
남편과 아내가 함께 힘을 모아 유가족 협의회의 일을 도맡아 하고 대학 간담회나 집회를 다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상규명활동에 매진함		
배우자와 함께 가정생활과 사회적인 활동을 나누어 분담하면서 희망을 갖고 전진하기를 바람		
진상규명 활동으로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사고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아내가 버텨주기를 바람		
세월호 재난 이후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는 자리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만 있으려는 남편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남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배우자를 지켜보는 게 힘듦	힘들어하는 배우자를 바라보며 소진되어감
신경질적으로 변한 아내가 말할 때도 쏘듯이 얘기를 해서 일상적인 대화도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꺼려짐		
남편의 우는 모습을 보고 덩달아 힘듦		
반항적인 태도의 생존자녀와 살아생전 부모의 뜻을 잘 따라주었던 잃은 자녀를 비교하며 잃은 자녀를 그리워하는 남편을 바라볼 때 가장 힘이 듦		
자녀의 죽음으로 마음을 잡지 못하는 남편이 답답하면서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못하고 막막한 심정		
남편이 일 하느라 잃은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추억이 없는 남편이 불쌍하고 안쓰러움	남편을 향한 염려	
사건 이후 술을 많이 마시고 잠을 자지 못하는 남편의 건강이 걱정됨		
죽은 자녀에 대해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며 나중에 갑자기 힘들어 할까봐 두려움을 느낌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남편이 걱정됨		
남편이 잃은 자녀에 대한 생각에 항상 매달려 있는 나머지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걱정이 됨		
세월호 사건에 갇혀 살아야만 하는 재혼한 아내에게 늘 미안하고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림	아내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안쓰러움	
세월호 재난 이후 계속 집에서 누워만 있는 아내가 안쓰러움		
얼굴도 몸의 건강도 망가진 아내를 보며 슬프고 안쓰러움		
이전에 비해 말귀가 어두워지고 기운이 없어진 아내가 염려되고, 한편으로는 (자녀사별을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듦		
참사와 함께 남편과 좋았던 과거의 시간들도 버려진 느낌을 받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부부의 모습	
아내의 괴로운 마음을 달래고자 둘이서 여행을 떠났지만, 예전처럼 삶의 목표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푸념 섞인 이야기들만 나눔		
재혼한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아이에 대한 생각만 몰두하게 될 것 같음		
남편과 예전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느껴짐		
예전처럼 남편과 자녀가 함께 크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 날이 올지 막막하게 느껴짐		

www.kci.go.kr

표 3. 자녀 때문에 부부가 유지되고 살아가게 됨: 부부에게 던져진 생존자녀와 사별 자녀의 의미

개념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우울증 진단을 받은 아내를 혼자 집에 두면 자살사고라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혼자 두지 않으려고 함	배우자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	사별의 슬픔을 배우자와 함께 감당해 가기
힘들어하는 나를 애처로워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편의 모습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웃으며 아내를 배려하려 노력 함		
다른 때는 괜찮은 척 잘 지내다가도 비만 오면 우울함에 젖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남편이 걱정되어서 신에게 남편이 잘못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함	신앙생활에 의지함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통해 고통스러운 일상을 버텨나감		
아내가 고부갈등을 겪어 분가를 하기로 결정함	분가와 이사를 계획함	
자녀의 장례를 치른 후 집에서 유품을 보며 슬퍼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이사를 계획 함		
세월호 진상규명활동을 위해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고 아내는 유가족 활동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견뎌가는 세월호 유가족	부부 각자의 대처	
자녀의 죽음 이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외부의 지지처를 찾음		
새엄마이지만 희생된 자녀를 위해 진상규명 활동을 2년간 계속해 온 아내에게 언제나 고마운 마음을 느낌	배우자 존재에 고마운 마음이 듦	자녀 잃은 고통을 버텨가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존재의 가치를 새로 알게 됨
가족의 중요성을 실감한 이후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배려하고 부탁을 잘 들어주려 노력함		
다른 유가족 부부들은 세월호 사건 이후로 불화를 많이 겪고 있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버텨 나가면서 관계가 변치 않고 원만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함		
친자식을 잃고 힘들어하는 자신을 위로해 주는 재혼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듦		
잃은 자녀에게 잘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에 옆에 있는 아내에게 잘 해야겠다고 생각함	자녀를 잃은 후 가족들을 소중하게 대하게 됨	
자녀를 잃고 나니 그동안 잘 해주지 못했던 아내와 남겨진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더욱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게 됨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활동하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응원해주는 남편이 힘이 됨	버팀목이 되어주는 배우자	
예전에는 남편이 아닌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아이가 없는 지금,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서로 의지함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내와 가족을 위하는 일이라며 무엇이든지 찾아서 자발적으로 하려고 노력 함		

www.kci.go.kr

표 3. 자녀 때문에 부부가 유지되고 살아가게 됨: 부부에게 던져진 생존자녀와 사별 자녀의 의미 (계속)

개념	하위구성요소	구성요소
혼자였다면 남은 자녀도 챙기지 않고 폐인처럼 살다가 죽음을 택했겠지만 아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음	버팀목이 되어주는 배우자	자녀 잃은 고통을 버텨가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존재의 가치를 새로 알게 됨
분별력을 잃고 희생된 자녀의 물건을 다 없애려고 하거나 자살시도를 했을 때, 중심을 잡고 견뎌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		
열정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하는 아내를 보면서 '엄마' 로서의 아내에 대해 존경심을 갖게 됨		
남은 자녀를 키워야 하는 남겨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고 느낌	부부에게 남겨진 생존 자녀의 의미	자녀 때문에 부부가 유지되고 살아가게 됨: 부부에게 던져진 생존자녀와 사별 자녀의 의미
형제를 잃은 트라우마에 시달려 일상생활이 어려운 남은 자녀마저 잃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자녀의 일상 회복을 위해 부부가 함께 노력함		
생존 자녀가 형제의 죽음 이후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부부가 함께 걱정하며 고민함		
진상규명과 교실존치 등 유가족을 위해 아무리 싸워도 늘 지는 싸움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절망감에 휩싸일 때 아내가 남은 자녀를 생각해서 견디자고 독려함		
가족의 행복이 사라지면 생존 자녀의 미래 또한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자녀의 죽음 이후 남겨진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함		
떠난 자녀를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게 위해 남은 자녀와 남편과 잘 살아야 겠다고 다짐함		
남은 자녀가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키우고 나서 아내와 세계여행을 하자고 약속하며 가정의 행복에 대한 희망을 주려고 노력함	떠난 자녀가 남겨준 숙제: 삶을 살아내야 함과 가정의 회복	
삶을 끝내고 싶다가도 남아있는 자녀와 배우자를 생각하고 먼저 떠난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삶을 살아내야겠다는 의지가 생겨 남		
이제 세상에 오직 나, 배우자, 생존자녀 1명으로 이루어진 세 명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자주 함		
남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일상의 여유로움을 되찾고 싶음		
하늘로 떠난 아이는 남겨진 가족들이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아파할 때는 아파하더라도 남겨진 가족들을 챙기고 함께 웃어야 한다고 생각함		
세월호 진상규명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여유가 생겨서 부부관계도 회복될 것을 희망함		

www.kci.go.kr

기는 것은 물론 다른 가족을 챙기는 것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연구참여자 13). 슬픔에 압도된 아내들은 밤마다 잃은 자녀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정지된 시간을 살아갔다(연구참여자 14). 이렇게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아내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또 다른 유가족과의 만남이었다. 다른 세월호 재난 유가족들을 만나면 세상을 뜬 자녀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었다(연구참여자 4, 6, 10, 11). 유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잃은 자녀의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다시 찾아 주는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견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 "14년부터 15년 초 될 때, 정말 음식도 하기 싫어서 부엌에도 안 갔어요. 부엌을 안 갔으니까 당연히 배달음식이나, 도시락 같은 걸로 OO이 동생이나 아빠나 그걸로 이제 때우고. 아예 부엌에 가는 것조차 재미가 없으니까." (연구참여자 13)

> "밤에는 술 먹고 낮에는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그나마 좀 나아요. 이 공방에 와서 이제 여기 있는 동안에 같이 웃고 울고 하면 되는데. 그나마 활동하기 때문에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참여자 11)

가장이기 때문에 슬픔을 억눌러야 하는 남편

세월호 재난으로 유가족 아버지들은 자녀를 잃은 데 대한 아픔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하루 마음속 울분을 속으로 삭히며 일상을 견뎌가는 것은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는 일이었다. 연구참여자 12의 경우, 자녀와의 사별 이전에는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직장 일을 하며 생활을 해왔지만 사별 이후에는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철회하여 홀로 아픔을 견뎌갔고, 연구참여자 14는 오히려 아픔을 견뎌내기 어려워 억지로 일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남편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 술로 시간을 채워갔다. 술을 마시며 잃은 자녀와 함께 했던 살아생전의 추억을 되새기기도 하고(연구참여자 10) 술에 취하여 현실을 회피하며 생활하는 경우도 많았다(연구참여자 2). 그러나 남편들은 무엇보다 가장으로서 남겨진 가족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유가족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책임감의 무게에 슬픔이 억눌려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저희 신랑도 처음에는 집회가 있으면 갔어요. 집회를 하면 울기부터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우리들을 호응해주면 눈물부터 흘리고. 다 우니까 그런 게 싫은가 봐요. 그 다음부터는 안 가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1)

> "지금도 아빠가 OO이의 그런 모습을 많이 생각하면서 술도 혼자 마시고 그래요. 낚시도 전혀 못 하고 계시고. 416 이후에 그렇게 좋아하던 낚시도 못하시고.. OO이와 같이 했던 추억 같은 것을 계속 얘기하고.. 오히려 아빠가... 저는 그냥 엄마니까 운다고 하지만, 남자가 우는 모습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아빠가 그렇게 술 마시면서 울고..." (연구참여자 10)

www.kci.go.kr

"회피하면 안 되고. 가슴으로 사그라져야 하니까.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가족이 가족 같지가 않고. 전에 있었던 가족 분위기가 안 나고 어떨 때는 이게 우리 집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전하고 후하고 뭔가 모르게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집의 가장으로서... 맞나? 순간순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생각 가졌나? 옛날에는 모든 게 당연하고 이런 저런 생각을 안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지도 않는. 가당치도 않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맞나. 우리 가족들이 생활하는 게 맞나. 뭔가 어딘가 빠진 것 같고 허전하고 그냥 막 공허하고. 어떻게 말로서 표현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가정에 가면 느껴지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14)

예전의 행복했던 모습과는 달라진 부부의 일상

세월호 유가족 부부들은 자녀를 잃은 극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부부관계 또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관계의 갈등은 부부 대화의 급격한 감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특히, 부부간 관계의 끈이 되어준 자녀를 잃고 나서 서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죽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부부 대화에서 암묵적인 금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부부가 죽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도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망연자실함이기도 했고(연구참여자 3, 14), 자녀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하는 조심스러움 때문이기도 했다. 부부는 이처럼 대화가 줄어들면서 서로 각방을 쓰거나, 함께 생활하면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연구참여자 1, 11).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나지 않았다. 또한, 자녀를 잃은 세월호 유가족 부부들은 자녀를 잃은 각자의 아픔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이전보다 서로에 대한 짜증이 잦아지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 항상 날이 서있는 배우자와의 대화는 싸움으로 이어지기 일쑤였고, 자녀를 잃은 슬픔을 풀 곳이 마땅치 않아 애꿎은 배우자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았다 (연구참여자 2, 9, 11).

"저는 아빠마음을 모르겠어요. 애 보내고 나서 애에 대해서 얘기도 안하고. 그래서 아빠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셋이 상담을 받는다면 지금 각자 심정이 어떤지 그런걸 알고 싶어요. 동생도 그렇고. 초창기에 동생이 오빠에 대한 얘기도 못하게 했거든요 요즘은 얘기를 조금씩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서로 얘기를 잘 안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OO이에 대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싶더라고요 아빠 같은 경우는 절대 OO이에 대해서 얘기 안하거든요. 단지 가끔 우리 둘이 얘기하면 소외된다는 느낌만 받고. 자기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고." (연구참여자 4)

"별거는 아직까지는 모르고 각자 생활을 해요. 같이 살아도. 내가 아는 집 같은 경우는. 각자 움직이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랬어요. 팽목항 같은데서 살아버려요. 부인하고 안 만나버려요. <중략> 단체로 모였을 때 만나고. 집에 있어도 각자 방에

www.kci.go.kr

있고. 리 모두가 그래요 지금요. 애하고 세명이 있어도 각자예요." (연구참여자 11)

"술 먹다가도 둘이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어차피 둘이 진상규명으로 가자는 뜻은 똑같아요. 그런데 진행하는 일에서는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고 이 사람(배우자)은 내 얘기를 듣고, 주위에 얘기를 듣다보면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술먹다보면 싸우기도 하고 얘기안하고 그러죠." (연구참여자 5)

힘들어하는 배우자를 바라보며 소진되어감

자녀의 죽음 이후, 연구참여자들은 고통스러워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해야 했다. 연구참여자 2는 자녀의 죽음으로 마음을 잡지 못하는 남편이 답답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연구참여자 10은 남편의 우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보고하였다. 매사 신경질적으로 변한 아내(연구참여자 12, 14), 더 이상은 웃음 섞인 대화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남편(연구참여자 10)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한다는 것은 연구참여자들에겐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들을 바라보며 염려와 안쓰러움도 동시에 느꼈다. 사건 이후 계속 집에 누워만 있으면서(연구참여자 15) 얼굴도 몸도 상해가는 아내(연구참여자 5)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에 가슴을 움켜쥐었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며(연구참여자 9), 자녀에 대한 생각에만 몰두한 채 자신의 남은 삶을 방치하는 남편(연구참여자 10)을 바라보면 염려와 깊은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죽은 자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걱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연구참여자 4는 지금 괜찮다가도 나중에 남편이 갑자기 힘들어하지는 않을지 불안하다고 보고하였다.

"똑같아요 상황이. 지금은 제 와이프가 좀 아파가지고 한두 달 동안 같이 좀 다니고 있는데 아휴. 같이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떨 때 보면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야할 그 자린데도, 굉장히 좀 나한테 좀 상처를 입히는 그런 쪽의 말을 하고 가능하면. (그런 배우자의 말을 들으면) 못 들은 척 참고 있는 거죠. 그러는데 아마 저 같은 가족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붙어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에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랬을 텐데. 지금은 그게 어느 순간에 같이 내재되어 있는 게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진짜 싸우거든요." (연구참여자 14)

"아빠가 아들들하고 같이 낚시나 이런 걸 많이 다녔어요. 특히 OO이 동생 같은 경우는 둘째다 보니까 고집이 셌어요. 근데 OO이 같은 경우는 첫째고 애가 약간..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착하고 순수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OO이는 정말 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였던 것도 그렇고. 어디를 간다고 하면 엄마 아빠의 뜻을 잘 따라주고... 그래서 아빠가 지금 그런 걸 많이 그리워하고 계세요... 지금도 어디 가거나 그럴 때 OO이 동생은

www.kci.go.kr

고집피우거나 안 가고 그러면 애가 약간 호응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회 반항적인 게 있어서... 아이가 그런 게 있는데, 아빠는 그거를 이해 못하는 거죠. 지금도보면 아빠가 OO이의 그런 모습을 많이 생각하면서 술도 혼자 마시고 그래요. 낚시도 전혀 못 하고 계시고..." (연구참여자 10)

"안쓰러울 때도 많아요. (남편은) OO이랑 추억이 많이 없잖아요. 아빠들이 다 그렇더만. 아이들하고 보낸 시간이 없더라고. 아빠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불쌍해요 사실은. '나랑은 추억이라도 많지 이 사람은 보면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지. 남자들은 불쌍해요 진짜." (연구참여자 6)

"저는 나중에 더 겁나요. 갑자기 확 와버리면(힘든 감정이 온다면) 제가 감당을 못할 텐데 지금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힘든 과정에 같이 다독거려 갈 텐데.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그럴까봐 두려워요. (남편이) 말을 안 하는 게 힘들어요. 원래 말을 안 하는데 지금도 말을 안 해요" (연구참여자 4)

세월호 재난과 동시에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는 부부사이의 좋았던 시간들도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연구참여자들은 더 이상은 예전 행복했던 부부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에 망연자실했다. 재혼 가정이었던 연구참여자의 경우 부인에게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아이에 대한 생각에만 몰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다며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였고(연구참여자 1) 부부가 함께 의지하기보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지지처를 찾아 생활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연구참여자 11). 한편, 연구참여자 14는 이러한 서로의 고통을 달래고 예전의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부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등 노력을 해 보기도 하였지만 결국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함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만 나눌 뿐이었다.

"부부관계가 더 소원해질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와이프가 사람이 싫다고 해서 둘이서 여행을 무작정 가자 그래서 며칠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한 게 그거에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지만 사는 데까지 사는데. 미래에 대한 걸 어떤 계획이 아니라 포기 상태에서 생각하는 쪽의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옛날에는 지향적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포기 쪽에서 그냥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좋게 말하면 행복을 추구했다. 이 행복추구란 자체가 굉장히 역발상이라 해야 되나 나쁜 쪽에서 나쁜 쪽에서 찾으려고 뭐랄까 말이 좀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14)

부부관계를 이어준 자녀를 잃은 뒤 연구참여자들은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동기도 사라졌다고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죽음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이혼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11은 세월호 이전에는 절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조금이라도 배우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면 쉽게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고

www.kci.go.kr

연구참여자 7도 남편과 싸우면서 이혼에 대한 극단적인 이야기를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부사이에 남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갈라서고 싶다가도 참게 되었다(연구참여자 3, 4). 이처럼 세월호 유가족의 부부사이에 자녀라는 존재는 부부의 남은 삶에서 갈등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저희는 OO이 동생을 생각해야죠. OO이만 생각한다면 저도 아빠랑 깨질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집착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일은 안하고 싶거든요. 아이를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경우도 있고. 재가 없으면 저 역시도 아빠와 사는 것에 크게 의미 안가질 것 같아요. 아이가 없는 가정들은 부부가 정말 다잡지 않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막 그런 것도 생겼어요. 살면서 부부가 장난으로라도 "그래. 헤어져. 내가 왜 너를 만나서" 이러면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농담으로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었거든요? 정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농담으로 라도 "이혼해. 뭐 갈라서면 되지." 웃으면서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4.16 이후로는 제가 그냥 앞에서는 그런 소리 잘 안 하는데, 서운하면 "아유. 안 살면 되지. OO이도 없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혼하지 뭐." 이런 생각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애들이 있는데 이혼을 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고,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뭐 일도 아니지. 이런 생각,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연구참여자 13)

사별의 슬픔을 배우자와 함께 감당해 가기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잃고 극도의 고통을 겪어내는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위태로운 보호자를 보호하고 서로 의지하려는 실질적인 노력들을 놓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가 자녀를 잃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자살시도라도 하지 않을지 걱정되어 혼자 두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면(연구참여자 14), 배우자의 예민한 반응에 부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웃으며 대하고자 노력하였다(연구참여자 11). 또한 자녀의 유품을 보며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 이사를 계획하는 등 (연구참여자 15)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다.

"남편은 평상시에 좀 괜찮다가 말씀으로 좀 살다가 비만 오면 이제 다운이 되는 거야. 우리 남편처럼 다른 유가족처럼 들은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우리 남편은 내 눈에 보일정도로 내가 걱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누워있다가도 쳐다보면 걱정이 돼.. 근데 본인이 얘길 하더라구.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남편 저기서 잘못되면 안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연구참여자 15)

www.kci.go.kr

"약을 안 먹고. 자기가 하겠다고. 내면적인 게.... 겉으로는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데 저는 뭐 3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혼자 집에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고." (연구참여자 14)

세월호 유가족 부부는 고통 속에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아가고자 노력하였다. 함께 기도생활을 하며 버텨가기도 하고(연구참여자 2, 15) 술잔을 기울이며 버텨가기도 했다(연구참여자 4, 6, 10, 13). 또한 진상규명과 생계유지에 모두 참여하기 어려웠기에 부부는 서로 역할분담을 하며 견뎌가기도 했다. 부부는 자녀를 잃은 참척의 고통 앞에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역할을 했다. 자녀를 잃고 나서는 그동안 자녀와 함께했던 시간을 이제는 배우자와 함께 보내면서 서로 의지하였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가족을 위하는 일들에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기도 했다.

"OO이는 이제 가버렸기 때문에, 남편, 나, OO이 동생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희망이 인제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려고 마음을 다지고 있고." (연구참여자 15)

"만약에 저희 신랑이랑 같이 먹거나. 저희 가족들 하고 술 먹을 건수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어차피 먹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집에서 혼자도 먹고. 근데 먹고 나서 애기 아빠는 그 다음날 후회하긴 하는데 저는 그런 후회 같은 거 안 해요! 그 날은 그냥 그렇게 먹어서 하루 그냥 버텼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13)

"지금은 싸우더라도 의견 충돌은 있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싸우긴 싸우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OO이만 끼고 살았거든요. OO이 오빠는 지방으로 내려가 있고 그래서 OO이만 많이 끼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신랑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연구참여자 6)

"아마 집사람이 없이 저 혼자서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저 스스로가 되게 아찔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저를 잘 알잖아요. OO이 동생도 눈에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냥... 죽었던지... 그냥 회사고 뭐고 안 다니고 폐인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갔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집사람한테 되게 고맙다고 그래요." (연구참여자 1)

자녀 잃은 고통을 버텨가는 과정에서 배우자라는 존재의 가치를 새로 알게 됨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이후 남겨진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자녀 살아생전에 잘 해주지 못했던 기억들이 맴돌았고, 남겨진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앞으로 더 잘 해주어야겠다는 다짐을 반복했다(연구참여자 15). 또한, 배우자는 세월호 재난이후 자녀를 잃고 힘들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였기에 그 소중함은 더욱 컸다(연구참여자 1). 자녀 상실의 아픔은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큰 고통이었기에, 그 고통을 함께 버텨가는 배우자의

www.kci.go.kr

존재가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었다.

"나한테 미안하고. 보이지 않는 OO이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아빠로서 너무 못해줬다 싶으니까 이제 보이고 있는 사람, OO이 동생하고 내가 있잖아요. 잘 해야겠다 생각이 드시나 봐요." (연구참여자 15)

"옛날에는 싫으면 싫다고 했는데, 요즘엔 무조건 다 해주죠. 그런 성향이 좀 있다고 할까요? 서로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도 예전에도 중요하다는 것 알았지만 더 알아서 그런지, 시키면 알아서 다 먼저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도 있고." (연구참여자 11)

"사실은 순간순간 감사할 때가...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가정들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다른 유가족들이 부부가정들보면.. 좋지 않게 변하는 가정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쁜 점들이 세월호 이후로 드러나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연구참여자 2)

자녀 때문에 부부가 유지되고 살아가게 됨: 생존/사별자녀의 의미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잃고 나서, 극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생존자녀라는 남겨진 의무가 있었다. 부부는 트라우마에 시달려 일상생활이 어려운 남은 자녀마저 잃고 싶지 않아 자녀의 일상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연구참여자 10). 또한 부부는 생존자녀가 형제의 죽음이후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고민했는데(연구참여자 12, 15) 떠난 자녀를 나중에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자녀와 남편과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보기도 했다(연구참여자 15). 남은 자녀는 떠난 자녀가 남겨준 숙제와 같았다. 삶을 끝내버리고 싶다가도 남아있는 자녀와 배우자를 생각하면 살아야 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연구참여자 1, 13). 연구참여자들은 남은 자녀가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가정의 행복에 대한 희망을 주고 싶었다(연구참여자 2).

"지금 부모는, 저희는 다 참아가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지금 현재 남은 아이마저 잃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계속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그 아이를 위해서 저희는 정말 잃고 싶지 않은 그 마음으로 아이에게 잘 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서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 잖아요. 가정에서는 그래도 아이가 엄마아빠가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만족을 하거든요. 왜냐면 엄마아빠가 그걸 참아가면서 자기를 대해주니까." (연구참여자 10)

"정말 이건 그게 크다고 생각해요. 건강하고 가족의 행복이 없어졌으니까. 외로움, 그럼 자식들의 희망도 없다... 생각하니까 남자로 볼 때는 참 안타깝죠. <중략> 우리는 안 된다고 보지는 않고, 될 거라고 하면서. 희망의 길을 가지고 하면서 전진하면서 그러면서 집에서는 엄마들이 옛날처럼 내조 좀 잘하면서, 아빠들을 자꾸 사회적으로 이슈나 제기를 하면서 계속 갈

www.kci.go.kr

생각은 다 있거든요?" (연구참여자 12)

"저는 OO이라는 아이를 알잖아요. 분명히 OO이가 하늘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엄마랑 OO이 동생이랑 행복하게 살다가 저에게 오세요. 라고 생각할 것 같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지금은 금방 치유가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거나 예전처럼 그렇게 웃을 수도 없고 나 행복하다 그렇게 느낄 수 없지만.." (연구참여자 1)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사별한 부모들의 부부관계 경험에 대한 일반적 구조기술

연구참여자들은 갑작스러운 재난 사고로 자녀를 사별한 이후 부부관계의 변화에 직면하였다. 부부관계 변화의 양상은 자녀 사별 경험에 대한 '부부의 서로 다른 애도반응 및 애도방식의 차이', 부부관계에서의 어려움 및 소통 감소의 내용이 포함된 '예전과 달라진 부부의 모습들', 그리고 배우자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새로운 부부의 의미를 찾아가고 가족 회복을 위한 노력의 내용이 포함된 '자녀 때문에 부부가 유지되고 살아가게 됨: 부부에게 던져진 생존자녀와 사별 자녀의 의미'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이 자녀 사별 이후 보이는 애도 반응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아내는 주로 슬픔에 압도되어 무기력하게 일상을 견뎌나가는 모습을 보이거나 힘든 일상 속에서도 다른 세월호 유가족들과 교류하며 슬픔을 버텨나가고 있었다. 반면 남편은 주로 자신의 사별 슬픔과 분노를 억압하거나 내색하지 않고 조절할 수 없는 감정을 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배우자와는 다른 애도반응을 경험함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부부의 삶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구술한 부부 삶의 어려움은 부부 간 대화에서 사별한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거나, 부부의 대화 자체가 감소하거나, 배우자에게 분노를 표출함에 따라 자주 다투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죽음 이후 배우자가 성격이 변화하거나 자주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보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배우자에 대한 염려나 연민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갑작스러운 자녀의 죽음은 씻을 수 없는 상처이므로 결코 세월호 재난 이전의 행복했던 부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느끼며 부부의 남은 삶에서 관계 회복을 비관하기도 하였다. 자녀가 부부관계를 지속하게 만드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왔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존재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이혼이나 별거를 생각하는 등 부부관계의 해체를 고려하기도 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잃은 참척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별한 자녀에게 살아생전 잘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은 곁에 있는 배우자와 생존자녀를 잘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잃은 자녀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자신의 곁을 오롯이 지켜주는 배우자의 존재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와 함께 의지하며 자녀를 잃은 고통을 견뎌나가고자 하였는데, 우울감에 빠진 배우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에 의지하거나 때로는 술의 힘을 빌리기도 하였다. 사별 슬픔을 견디는 동반자로서 배우자의

www.kci.go.kr

존재가 힘이 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와 함께 생존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남겨진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고 배우자와 함께 끊임없이 생존 자녀의 양육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진정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자녀의 죽음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부부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자녀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함께 진상규명활동에 매진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와 함께 역할 분담을 해서 가정을 유지해나갈 뿐만 아니라, 잃은 자녀를 위한 진상규명활동을 지속해나감으로써 '동반자'이자 '협력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세월호 재난으로 청소년 자녀와 사별한 부모들의 부부관계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 중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기술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 연구참여자의 고유한 경험세계를 보여주는 방법으로(Giorgi, 2004), 세월호 유가족의 부부의 삶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구성요소는 '슬픔에 갇힌 채 일상을 버텨가는 아내', '가장이기 때문에 슬픔을 억눌러야 하는 남편', '예전의 행복했던 모습과는 달라진 부부의 일상' 등 7개의 구성요소, 25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부의 서로 다른 애도반응 및 애도방식의 차이', '예전과 달라진 부부의 모습들', '자녀 때문에 부부가 유지되고 살아가게 됨: 부부에게 던져진 생존 자녀와 사별 자녀의 의미'의 세 축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잃고 가눌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2년을 힘겹게 살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자녀를 잃은 고통을 견뎌가면서도 감당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았다. 자녀의 죽음이후,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고, 남아있는 자녀의 부모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가장 가깝게는 부부간 배우자 역할을 하며 한 사람의 아내, 남편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일상을 여전히 살아가야 했다. 가족 체계적 관점으로 볼 때, 자녀의 죽음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부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사건이기 때문에(Gilbert, 1997; Lichtenthal, Currier, Neimeyer, & Keesee, 2010; Shapiro, 2007; Walsh & McGoldrick, 2004), 세월호 유가족 부부들은 자녀의 죽음과 함께 가족 전체의 변화를 경험하며 2중, 3중의 고통을 온 몸으로 겪어 내고 있었다. 이처럼 자녀를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부부의 삶에 대한 탐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자녀를 잃은 부부가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하고 버텨내고 있는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는 지 등을 탐색함으로써 이들의 실질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부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기에 부부의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없을 수 없었다. 부모가 자녀를 잃는 것에 대해 Bachman은 '미

www.kci.go.kr

래를 잃는 것’이라고 하였고, Yalom 또한 ’미래 과제의 상실(project loss)’이라고 언급하였는데(Yalom, 2005: 정연자, 이인수, 2017에서 재인용), 이는 자녀와 함께 꿈꾸며 살아온 삶이 모두 사라져 버려 큰 상실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예기치 못한 가족 구성원의 죽음을 경험할 때 사별을 애도하는 것이 더욱 어렵고, 남겨진 유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복합비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Kaltman & Bonanno, 2003; Nakajima, Masaya, Akemi, & Takako, 2012: 이동훈 등, 2017에서 재인용). 이처럼 사고로 인해 자녀를 잃은 부모는 심각한 심리적 외상과 지속된 애도 증상을 보이며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다. 또한, 자녀의 죽음이후 부부 삶의 변화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Salakari, Kaunonen, & Aho, 2014)에서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경우, 정신 건강의 악화, 정체성의 변화, 정서적 소통의 어려움, 성적 친밀감의 감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부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세월호 재난 이후 유가족 부부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자의 아픔을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소되지 않은 분노와 우울 등의 고통이 부부 서로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세월호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세월호 재난 이후 성마른 성격으로 변화하거나 신경질이 증가하는 등 쉽게 짜증과 화를 내는 성향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이동훈 등, 2017)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외부 자극에 쉽게 동요되고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특성(김순진, 김환, 2000; Stroebe et al., 2007: 이동훈 등, 2017에서 재인용)을 보인다는 연구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세월호 유가족의 심리적 특성 변화로 인해 가족 구성원 및 예전 부부의 삶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항상 날이 서있는 배우자와 대화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였고, 대화를 시작하면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슬픔을 풀 곳이 마땅치 않았던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에게 화를 쏟아내기도 했고, 작은 것에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구술하였다. 이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것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연구참여자들도 많았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부 사이를 이어주는 자녀의 상실로 자연스럽게 이혼에 대해 언급되는 횟수도 늘어갔고, 이미 자녀사별까지 경험했기에 이혼을 한다고 해도 그보다 더 아플 수는 없다고 느끼며 다른 아픔들에는 무감각해져버렸다고 구술하기도 하였다. 자녀를 잃은 부모는 자녀의 사망이후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생활 만족도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별거나 이혼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Lyngstad, 2013; Murphy, Johnson, Wu, Fan, & Lohan, 2003)들은 세월호 재난을 경험한 유가족 부부에게도 유사하게 드러났다.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부의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남편과 아내 간 애도반응 및 방식의 차이였다. 애도반응에 대한 부모의 성차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녀를 잃은 부모 중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하여 자녀의 죽음에 더 심각한 영향을 받고 더 많은 우울감과 슬픔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arrera et al., 2007; Keesee et al., 2008; Rubin & Malkinson, 2001; Stroebe et al., 2008; Wijngaards-de Meij et al.,

www.kci.go.kr

2005; Znoj & Keller, 2002) 실제로 연구참여자들 가운데 아내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사별로 인해 슬픔에 압도되어 일상생활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녀를 잃고 참척의 고통에 압도된 아내들은 남은 자녀를 위한 집안 살림이나 식사를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잃은 자녀의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2년을 보냈다고 구술하였다. 반면, 남편은 고통을 내색하기 보다는 자녀 잃은 큰 슬픔을 회피하며 울분을 삭히곤 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가장이라는 책임감의 무게에 슬픔이 억눌려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부부 간에 나타나는 애도반응의 차이는 유가족 부부의 오해와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인지치료에서 Baucom, Epstein, Sayers와 Sher(1989)는 대인관계에 갈등을 가져오는 인지유형으로 귀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귀인이란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왜곡하여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Baucom & Epstein, 1990; Epstein & Baucom, 2002). 이러한 편향된 추론은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부정적인 의사소통과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을 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연구참여자 3은 서로 다른 애도반응을 보며 자신보다 애도반응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에 대해 자녀에 대한 애착이 적었던 것으로 왜곡하여 추론, 해석하였고 이는 부부 관계 어려움으로 이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애도에 대한 대처방식의 차이 또한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은 주로 공방에서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 견뎌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시간들은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잃은 자녀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 같은 경험을 한 유가족들로부터 자녀 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공감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구술하였다. 한편 남편들은 아내와 달리 자녀를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 억지로 직장에 나가서 일에 매달리며 시간을 보내거나 술로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았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였는데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경우,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타인과 나누고자 하거나, 좀 더 타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을 나누기보다 자녀의 죽음 이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lam et al., 2012; Barrera et al., 2007; Hopmeyer & Werk, 1994). 게다가, 자녀 살아생전에 자녀가 어머니와 유대가 더 강했던 경우, 아내는 남편의 지지보다 외부의 지지처를 찾아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gstraesser al., 2015).

이처럼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부들은 자녀를 잃은 이후 개인적인 내적 갈등뿐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재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 이외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자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부부가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다(Bergstraesser al., 2015). 즉 그만큼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부부 간의 지지적인 태도와 회복이 중요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이러한 부부관계 어려움에 당면한 상황을 지원하는 부부 상담이나 부부 중심 프로그램이 전무한

www.kci.go.kr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서는 유가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을 지원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이나 소통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부부상담을 통해 앞으로 부부가 함께 자녀를 애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애도반응 차이를 수용하고 각자의 고유한 애도방식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가령, 사별로 인한 정서적 경험의 차이를 배우자와 직접 나눌 수 있는 부부간 실질적인 대화법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 등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부부가 함께 잃은 자녀를 애도하기 위한 대처전략, 예를 들어 지속되는 애도과정을 다루기 위한 목표를 함께 설정한다거나, 서로의 슬픔이 전염되지 않도록 각자의 지지처를 찾는 등(Bergstraesser et al., 2015)의 전략 등은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의 애도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 부부에게서 나타난 현상은 각자의 고통으로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재난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죽은 자녀에 대한 기억과 아픔을 함께 공유했다는 측면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주는 동반자가 되어 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부부가 자녀를 잃은 이후에 갈등을 경험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들이 있었지만, 최근 연구결과는 이혼을 하는 경우 실제 아이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관계가 좋지 못한 부부들이 이를 계기로 이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윤득형, 2017; Versalle, & McDowell, 2005). 다시 말해, 자녀를 잃은 고통은 부부관계 어려움의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며 오히려 자녀를 함께 기억하는 동반자로서 배우자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중에서도 이러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보호하였고, 자녀를 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잃은 자녀에게 잘 해주지 못해서 못내 미안하고 가슴 아팠던 연구참여자들은 옆에 있는 배우자와 남은 자녀에게 앞으로 더 잘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가족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배우자를 무조건적으로 배려하고 도와주려 노력하기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녀를 잃고 힘들어하는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놓지 않았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아내의 남편은 아내에게 자살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되어 혼자두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남편을 위해 신에게 기도를 하기도 하였다고 구술하였다. 자녀와 함께 생활했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구체적으로 계획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부부는 고통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아가고 있었다. 서로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견뎌가기도 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일상의 고통을 감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재난 이전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느꼈다.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의 발생과 함께 남편과의 좋았던 과거의 시간들도 버려졌다고 구술하기도 하였고, 예전처럼 삶의 목표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부부는 진상규명활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해 서로 역

www.kci.go.kr

할을 나누어 각자의 자리를 견뎌가기도 했다. 배우자가 생계로 인해 직장생활을 참여하면서 연구참여자가 진상규명활동에 적극가담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역할 분담 덕분에 부부는 서로의 자리를 견뎌주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재난 이전에는 남편보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반면 자녀가 없어지면서 부터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이전보다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2는 분별력을 잃고 자살시도를 했을 때 배우자가 중심을 잡고 견뎌주어 버텨낼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고 구술하기도 하였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며 극한 고통을 함께 함으로써 서로 깊은 유대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나(Toller & Braithwaite, 2009), 배우자가 지지 자원이 됨으로써 부부의 응집력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Essakow & Miller, 2013; Titus & Souza, 2011). 이러한 측면에서 세월호 유가족 부부가 재난 이후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갖고 서로를 지지하는 지지체계로 기능하여 가족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유가족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망 속에서 안도와 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애도와 향후 적응적 회복을 위해, 부부와 가족의 재건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이밖에 세월호 유가족의 부부사이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 외부요인들이 있었는데, 먼저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부부에게 남겨진 생존자녀였다. 재난으로 인해 형제·자매를 잃게 된 생존 자녀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성적이 떨어진다거나, 게임에 빠지거나, 대인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자녀를 바라봐야 하는 부모의 고통은 세월호 재난을 경험한 부부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다. 이들은 부부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남은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남겨진 의무가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되어주었다. 부부는 자녀의 부정적 변화를 바라보며 함께 걱정하고 고민을 하였다. 자신의 삶의 희망이 사라져도 자녀의 희망과 행복은 사라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가족의 회복을 위해, 자녀 죽음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꾸준히 시도하였다. 남은 자녀와 함께 가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떠난 자녀가 남겨준 숙제이기도 했다. 이는 부부가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공동양육자로서 생존자녀를 형제의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가족의 응집성과 유대감이 증진된다는 (Rossetto, 2015) 선행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부부가 함께 남겨진 자녀와 죽음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눌 때 자녀의 회복을 돕고 (Webb, 2005), 가족차원 애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Rosenblatt, 2000a) 선행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향후 세월호 유가족 부부를 지원함에 있어 상담자는 생존자녀를 포함한 가족회복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 부부가 사별의 아픔을 함께 감당해 나가면서도 생존자녀를 키우는 '공동양육자'로서 함께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존자녀가 자녀를 잃은 유가족 부모에게 긍정적으로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잃고 슬픔이 차오를 때조차 생존자녀와 함께 양육자로써 생활해야 했기에 마음 놓고 슬퍼할 수 없었다고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에서 부모역

www.kci.go.kr

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했기에 떠난 자녀를 애도하지 못하고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자녀의 죽음을 경험한 부모들이 자녀와의 사별로 인한 슬픔으로 고통받는 한편 여전히 생존자녀의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나가야 하는 이중적인 양상에 직면한다는 선행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자녀를 잃은 부모는 생존자녀를 보호하려는 노력 때문에 정작 자신의 애도는 표출하지 못한 채 미해결된 상태로 지속하게 된다는 것이다(Buckle, & Fleming, 2011; Rosenblatt, 2000b; Lehman & Lang, Sorenson, 1989).

한편, 부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자녀의 죽음원인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죽음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밖에서는 표출하지 못하고 가족 안에서 배우자에게 퍼붓게 되곤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국가는 너무 거대한 벽이었기에 국가를 향한 분노를 가족에게 해소할 수밖에 없었다. 세월호 재난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일은 이들에게 다신 이런 일이 사회에서 일어나선 안 된다는 신념을 갖게 했고 부부가 함께 버텨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기도 했다. 재난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때까지, 배우자가 조금 더 견뎌주길 서로에게 응원하고 지지하였다. 재난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과 자신의 자녀가 충분히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유가족의 인식은 유가족의 애도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세월호 재난 이외에도 재난의 원인을 알지 못할 경우 애도가 지연되고 심리적 고통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성희(2004)는 대구지하철 참사위기개입 연구를 통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유가족들의 당황스러움과 슬픔, 죽음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가 4개월간 지속되면 불안, 분노, 자살 충동 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윤수(2014)는 천안함 사건 유가족의 심리사회적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천안함 유가족들 또한 죽음에 대한 확인과 시신의 발견에 따른 심리적 변화 및 가족 내 갈등양상이 달라졌음을 보고하였다. Worden(2008)은 애도의 4가지 과업을 상실의 수용, 슬픔 다루기, 사별대상의 부재에 대한 적응, 삶의 지속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자녀의 죽음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유가족들은 상실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부에게 세월호 재난 원인을 알아내는 것은 회복의 열쇠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가족 회복을 위한 심리적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정중앙에 있는 재난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부부관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인 세월호 유가족 부부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본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죽음으로 인한 큰 슬픔을 경험하면서 서로의 고통이 전이 되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부부의 애도반응 및 애도 대처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심화되었지만, 점차 사회에서는 잊혀져가는 자녀의 죽음을 함께 기억하고 애도하는 동반자로서 서로 연대하고 의지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

www.kci.go.kr

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참사 이전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 망연자실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느꼈다고 보고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한편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부들은 일상에서 남아있는 생존자녀의 부모역할을 해 나아가야 했다. 이는 부부에게 남은 삶의 유일한 동기가 되어 주었으면서도 떠난 자녀에 대해 마음껏 애도하지 못하고 슬픔을 억누르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재난 이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떠난 자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안전한 사회에 대한 사회적 소명감으로 남은 삶을 버텨가고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유가족 협의회에 소속되어 진상규명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나타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유가족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거나, 진상규명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가족들과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질적연구의 특성상 본 연구는 유가족 경험의 일반화보다는 세월호 유가족 경험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오히려 유가족 가운데 사회와 완전히 고립된 부부나 재난 이후 극심한 갈등을 겪어 이혼을 한 부부는 연구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 생존자녀가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참고문헌

김순진, 김 환 (200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서울: 학지사.

윤득형 (2017). 사별 애도를 위한 영적 돌봄과 의미 만들기 이론: 자녀를 잃은 부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53, 411-438.

이동훈, 이춘화, 신지영, 강민수, 전지열, 이화정, 김미정 (2017). 세월호 재난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내적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심리정서, 신체, 인지, 행동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255-291.

이성희 (2004). 대구지하철 사고 유가족에 대한 위기개입(Ⅰ). 사회복지개발연구, 10(2), 141-159.

이윤수 (2014). “천안함 사건” 유가족의 심리사회적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43(0), 87-110.

정연자, 이인수 (2017). 사고사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외상 후 성장 경험. 가족과 가족치료, 25(3), 471-495.

Abbott, D. A. (2009). Violent death: A qualitative study of Israeli and Palestinian familie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4*(2), 117-128.

Alam, R., Barrera, M., D’Agostino, N., Nicholas, D. B., & Schneiderman, G. (2012). Bereavement experiences of mothers and fathers over time after the death of a child due to cancer. *Death Studies, 36*(1), 1-22.

Albuquerque, S., Pereira, M., & Narciso, I. (2016). Couple’s relationship after the death of a child: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1), 30-53.

Avelin, P., Rådestad, I., Säflund, K., Wredling, R., & Erlandsson, K. (2013). Parental grief and relationships after the loss of a stillborn baby. *Midwifery, 29*(6), 668-673.

Barrera, M., D’Agostino, N. M., Schneiderman,

www.kci.go.kr

G., Tallett, S., Spencer, L., & Jovcevska, V. (2007). Patterns of parental bereavement following the loss of a child and related factors.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55*(2), 145-167.

Baucom, D. H., Epstein, N., Sayers, S. L., & Sher, T. G. (1989). The role of cognitions in marital relationships: Definitional,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issu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31-38.

Baucom, D. H., & Epstein, N. (1990). *Cognitive-behavioral marital therapy*. Philadelphia: Brunner/Mazel.

Baumeister, R. F., Stillwell, A. M., & Heatherton, T. F. (1994). Guilt: An interpersonal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15*(2), 243-267.

Bergstraesser, E., Inglin, S., Hornung, R., & Landolt, M. A. (2015). Dyadic coping of parents after the death of a child. *Death Studies, 39*(3), 128-138.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s?. *American Psychologist, 59*(1), 20-28.

Broman, C. L., Riba, M. L., & Trahan, M. R. (1996). Traumatic events and marit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4), 908-916.

Buckle, J. L., & Fleming, S. (2011). *Parenting after the death of a child: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Routledge.

Buyukcan-Tetik, A., Finkenauer, C., Schut, H., Stroebe, M., & Stroebe, W. (2017). The impact of bereaved parents' perceived grief similarity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1*(4), 409-419.

Cacciatore, J., DeFrain, J., Jones, K. L., & Jones, H. (2008). Stillbirth and the couple: A gender-based exploratio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1*(4), 351-372.

Cain, A. C., Fast, I., & Erickson, M. E. (1964). Children's disturbed reactions to the death of a sibling.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34*(4), 741-752.

Epstein, N. B., & Baucom, D. H. (2002). *Enhance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couples: A contextual approac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ssakow, K. L., & Miller, M. M. (2013). Piecing together the shattered heirloom: Parents' experiences of relationship resilience after the violent death of a chil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41*(4), 299-310.

Figley, C. R. (1999). *Traumatology of grieving: Conceptual, theoretical, and treatment foundations*. PA: Brunner/Mazel, Taylor & Francis Group.

Fraley, R. C., & Bonanno, G. A. (2004). Attachment and loss: A test of three competing models on the association between attachment-related avoidance and adaptation to bereav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7), 878-890.

Gilbert, K. R. (1997). *Couple coping with the death of a child. Death and trauma: The traumatology of grieving,* New York: Taylor & Francis.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Giorgi, A. (2002). The question of validity in

www.kci.go.kr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33*(1), 1-18.

Giorgi, A.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신경림, 장연집, 박인숙, 김미영, 정승은 역). 서울: 현문사. (원전은 1985년에 출판).

Guba, E. G., & Lincoln, Y. S. (1985). *Naturalistic inquiry (Vol. 75)*. CA: Sage.

Hooghe, A., Neimeyer, R. A., & Rober, P. (2011). The complexity of couple communication in bereavement: An illustrative case study. *Death Studies, 35*(10), 905-924.

Hooghe, A., Rosenblatt, P. C., & Rober, P. (2018). "We hardly ever talk about it": Emotional Responsive Attunement in Couples after a Child's Death. *Family Process, 57*(1), 226-240.

Hopmeyer, E., & Werk, A. (1994). A comparative study of family bereavement groups. *Death Studies, 18*(3), 243-256.

Johnson, S. M. (2002). *Emotionally focused couple therapy with trauma survivors: Strengthening attachment bonds*. New York: Guilford Press.

Joronen, K., Kaunonen, M., & Aho, A. L. (2016). Parent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fter the death of a child.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30*(3), 499-506.

Kaltman, S., & Bonanno, G. A. (2003). Trauma and bereavement: Examining the impact of sudden and violent death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7*(2), 131-147.

Keesee, N. J., Currier, J. M., & Neimeyer, R. A. (2008). Predictors of grief following the death of one's child: The contribution of finding mean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4*(10), 1145-1163.

Kissane, D. W., McKenzie, M., Bloch, S., Moskowitz, C., McKenzie, D. P., & O'Neill, I. (2006). Family focused grief therapy: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n palliative care and bereave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3*(7), 1208-1218.

Klass, D. (1987). Marriage and divorce among bereaved parents in a self-help group.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17*(3), 237-249.

Lang, A., Gottlieb, L. N., & Amsel, R. (1996). Predictors of husbands' and wives' grief reactions following infant death: The role of marital intimacy. *Death Studies, 20*(1), 33-57.

Lehman, D. R., Lang, E. L., Wortman, C. B., & Sorenson, S. B. (1989). Long-term effects of sudden bereavement: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reac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 344-367.

Lichtenthal, W. G., Currier, J. M., Neimeyer, R. A., & Keesee, N. J. (2010). Sense and significance: A mixed methods examination of meaning making after the loss of one's child.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6*(7), 791-812.

Lohan, J. A., & Murphy, S. A. (2002). Family functioning and family typology after an adolescent or young adult's sudden violent death. *Journal of Family Nursing, 8*(1), 32-49.

Lohan, J. A., & Murphy, S. A. (2007). Bereaved mothers' marital status and family functioning after a child's sudden, violent death: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Loss and Trauma, 12*(4), 333-347.

Lyngstad, T. H. (2013). Bereavement and divorce:

www.kci.go.kr

Does the death of a child affect parents' marital stability?. *Family Science, 4*(1), 79-86.

Martin, T. L., & Doka, K. J. (2000). *Men don't cry...women do: Transcending gender stereotypes of grief.* Psychology Press.

Moriarty, H. J., Carroll, R., & Cotroneo, M. (1996). Differences in bereavement reactions within couples following death of a child.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9*(6), 461-469.

Murphy, S. A., Clark Johnson, L., & Lohan, J. (2003). Finding meaning in a child's violent death: A five-year prospective analysis of parent's personal narratives and empirical data. *Death Studies, 27*(5), 381-404.

Murphy, S. A., Clark Johnson, L., Wu, L., Fan, J. J., & Lohan, J. (2003). Bereaved parents' outcomes 4 to 60 months after their children's deaths by accident, suicide, or homicide: a comparative study demonstrating differences. *Death Studies, 27*(1), 39-61.

Murphy, S. A., Johnson, L. C., & Lohan, J. (2003). Challenging the myths about parents' adjustment after the sudden, violent death of a child.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5*(4), 359-364.

Najman, J. M., Vance, J. C., Boyle, F., Embleton, G., Foster, B., & Thearle, J. (1993). The impact of a child death on marital adjustment. *Social Science & Medicine, 37*(8), 1005-1010.

Nakajima, S., Masaya, I., Akemi, S., & Takako, K. (2012). Complicated grief in those bereaved by violent death: The effect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n complicated grief. *Dialogues in Clinical Neuroscience, 14*(2), 210-214.

Oliver, L. E. (1999). Effects of a child's death on the marital relationship: A review.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39*(3), 197-227.

Omery, A. (1983). Phenomenology: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2), 49-64.

Polatinsky, S., & Esprey, Y. (2000). An assessment of gender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benefit resulting from the loss of a child.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4), 709-718.

Rando, T. A. (1983). An investigation of grief and adaptation in parents whose children have died from cancer.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8*(1), 3-20.

Rando, T. A. (1984). *Grief, dying, and death: Clinical interventions for caregivers.* Champaign, IL: Research Press.

Rasras, K., Mitwalli, S., & Sehwail, M. (2006). Group therapy for Palestinian family members after violent death. In E. K. Rynearson (Ed.), *Violent death: Resilience and intervention beyond the crisis*(pp. 357-370).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Rogers, C. H. (2005). *The effect of the death of a child on midlife mental and physical health: An exploration of risk and resilience factor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Georgia State University, Atlanta.

Rosenblatt, P. C. (2000a). *Parent grief: Narratives of loss and relationship.* New York: Routledge.

Rosenblatt, P. C. (2000b). Protective parenting after the death of a child. *Journal of Personal & Interpersonal Loss, 5*(4), 343-360.

www.kci.go.kr

Rosenblatt, P., & Elde, C. (1990). Shared reminiscence about a deceased parent: Implications for grief education and grief counseling. *Family Relations, 39*(2), 206-210.

Rossetto, K. R. (2015). Bereaved parents' strategies and reactions when supporting their surviving children.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79*(5), 533-554.

Rellias, B. U. O. (2011). *The trauma of the sudden death of a child: The impact on couple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thesis, Loma Linda University, Loma Linda.

Riches, G., & Dawson, P. (1996). Making stories and taking stories: Methodological reflections on researching grief and marital tension following the death of a child.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24*(3), 357-365.

Riches, G., & Dawson, P. (2000). *An intimate loneliness: Supporting bereaved parents and siblings*. UK: McGraw-Hill Education.

Rubin, S. S., & Malkinson, R. (2001). *Parental response to child loss across the life cycle: Clinical and research perspectiv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lakari, A., Kaunonen, M., & Aho, A. L. (2014). Negative changes in a couple's relationship after a child's death. *Interpersona, 8*(2), 193-209.

Schildhaus, W. K. (1997). *Marital adaptation and growth after the death of a child.*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MA. USA.

Schwab, R. (1992). Effects of a child's death on the marital relationship: A preliminary study. *Death Studies, 16*(2), 141-154.

Shapiro, E. R. (2007). Whose recovery, of what? Relationships and environments promoting grief and growth. *Death Studies, 32*(1), 40-58.

Song, J., Floyd, F. J., Seltzer, M. M., Greenberg, J. S., & Hong, J. (2010). Long term effects of child death on parent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 dyadic analysis. *Family relations, 59*(3), 269-282.

Stroebe, M. (2001). Gender differences in adjustment to bereavement: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1), 62-83.

Stroebe, M., Finkenauer, C., Wijngaards-de Meij, L., Schut, H., van den Bout, J., & Stroebe, W. (2013). Partner-oriented self-regulation among bereaved parents: The costs of holding in grief for the partner's sake. *Psychological science, 24*(4), 395-402.

Stroebe, M. S., Hansson, R. O., Schut, H. E., & Stroebe, W. E. (2008).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and practice: Advances in theory and interven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troebe, M., Schut, H., & Stroebe, W. (2007). Health outcomes of bereavement. *The Lancet, 370*(9603), 1960-1973.

Stroebe, W., & Stroebe, M. S. (1987). *Bereavement and health: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nsequences of partner los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Talwar, V., Harris, P. L., & Schleifer, M. (2011).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ath: From biological to religious concep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ompson, A. L., Miller, K. S., Barrera, M., Davies, B., Foster, T. L., Gilmer, M. J., ...

www.kci.go.kr

& Gerhardt, C. A. (2011). A qualitative study of advice from bereaved parents and siblings. *Journal of Social Work in End-of-Life & Palliative Care, 7*(2-3), 153-172.

Titus, B., & de Souza, R. (2011). Finding meaning in the loss of a child: Journeys of chaos and quest. *Health communication, 26*(5), 450-460.

Toller, P. W., & Braithwaite, D. O. (2009). Grieving together and apart: Bereaved parents' contradictions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37*(3), 257-277.

Ungureanu, I., & Sandberg, J. G. (2010). "Broken together": Spirituality and religion as coping strategies for couples dealing with the death of a child: A literature review with clinical implication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2*(3), 302-319.

Vandenberg, S. K. B. (2001). Grief communication, grief reactions and marital satisfaction in bereaved parents. *Death Studies, 25*(7), 569-582.

Versalle, A., & McDowell, E. E. (2005). The attitudes of men and women concerning gender differences in grief.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50*(1), 53-67.

Walsh, F., & McGoldrick, M. (2004). *When a family deals with loss: Adaptational challenges, risk, and resilience.* New York: Routledge.

Webb, C. L. (2005). Parent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Duchenne muscular dystrophy.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1*(4), 385-396.

Wijngaards-de Meij, L., Stroebe, M., Schut, H., Stroebe, W., van den Bout, J., van der Heijden, P., & Dijkstra, I. (2005). Couples at risk following the death of their child: predictors of grief versus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4), 617-623.

Wijngaards-de Meij, L., Stroebe, M., Schut, H., Stroebe, W., van den Bout, J., van der Heijden, P. G., & Dijkstra, I. (2007). Patterns of attachment and parents' adjustment to the death of their chil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4), 537-548.

Worden, J. W. (2008).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A handbook for the mental health practitioner.*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Znoj, H. J., & Keller, D. (2002). Mourning parents: Considering safeguards and their relation to health. *Death Studies, 26*(7), 545-565.

1차원고접수 : 2017. 11. 14.
수정원고접수 : 2018. 04. 08.
최종게재결정 : 2018. 06. 08.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18, Vol. 37, No. 2, 221-255
http://dx.doi.org/10.22257/kjp.2018.06.37.2.221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in the Marital relationship of Adolescent Victims' Parents: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Sewol Ferry Disaster Victims' Families

Ji Young Shin[1)] Dong Hun Lee[1)] Eun Kyoung Seo[2)] Jiyeol Jeon[1)]

[1)]Department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Ansancity Youth Counseling & Welfare Center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marital relationship of bereaved parent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fter the death of a child.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was employed to deduct 7 components and 25 subcomponents from statements of deep interview of 15 participants. The participants' experience of marital relationship is divided into 'the difference of married couples', 'grief reaction and grieving style', 'couples` relationship after death of their child' and 'parents who live for their child: meaning of surviving children and a deceased child'. The components are: 'wives enduring sorrow of bereavement', 'husbands avoiding grief', 'changes in couples' daily lives', 'exhausted by looking at a spouse', 'coping with grief', 'awareness of the value of a spouse', 'maintaining couples' relationship for their child'. The discussion and implication were provid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 words : Sewol Ferry, adolescents, bereavement, marital relationship

www.kci.go.kr